

여자월드컵 본선 진출 동북아 3국 '강호 벽 실감'

한국, '유럽챔피언' 잉글랜드에 0-4 대패
일본, 미국 대회서 브라질에 0-1로 패배
중국, 스웨덴과 친선경기서 1-4로 완패

2023 호주 뉴질랜드 여자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동북아 3국이 새해 첫 평가전에서 나란히 강호들에 무릎을 꿇었다. 반 년이 채 남지 않은 월드컵 무대가 화려호락하지 않음을 실감하고 있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은 지난 17일(한국시간) 영국 밀튼 케인스에 있는 스타디움 MK에서 열린 잉글랜드와 2023 아놀드 클라크컵 1차전 경기에서 0-4로 대패했다.

한국은 2022 유럽여자축구선수권(여자 유로 2022)에서 독일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유럽 챔피언 잉글랜드를 상대로 선수비 후역습 전략을 짰지만 상대를 위협하지 못하고 참패했다.

미국에서 열리는 쉬발리브스컵에 출전한 일본은 이날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대회 1차전에서 브라질에 0-1로 졌다.

브라질 데비나가 동료 마르타의 크로스를 골로 연결시켜 결승 득점을 올

렸다. 일본에게는 리카코 고바야시의 솜이 골문을 벗어난 장면, 마이카 하마노가 날린 솜이 골대를 때린 장면이 아쉬운 대목이었다.

중국은 이날 스페인 마르벨라 축구센터에서 열린 스웨덴과 친선 경기에서 1-4로 졌다.

스웨덴은 전반 15분 안에 3골을 넣으며 승기를 잡았다. 요한나 리팅 카네리드에 이어 마델렌 아노위가 2골을 넣었다. 중국 유이 사오가 1골을 만회했지만 스웨덴 나탈리 비온이 페기골을 터뜨렸다.

이처럼 한중일 3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나란히 패전을 경험한 가운데 월드컵 본선을 향한 준비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은 이번엔 벨기에와 이탈리아를 상대하고 일본은 미국과 캐나다를, 중국은 스페인 프로축구단 우엘바, 그리고 아일랜드 국가대표팀을 만난다.

이 같은 담금질을 바탕으로 오는 7월 개막하는 월드컵에서 한중일 3국이 어떤 성적을 거둘지 주목된다. 한국은 독일, 모로코, 콜롬비아와 H조에 속했다. 일본은 스페인, 코스타리카, 잠비아와 C조에 포함됐다. 중국은 D조에서 잉글랜드, 덴마크, 플레이오프 승자칠레, 세네갈, 아이티 중 1개국을 상대한다.

여자월드컵 역대 성적에서는 일본이 앞선다. 일본은 2011년 독일 대회에서 우승했다. 중국은 1999년 미국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반면 한국은 2015년 캐나다 대회 16강 진출이 최고 성적이다. /뉴스



지난 17일(한국시간) 영국 밀튼 케인스 소재 스타디움 MK서 열린 잉글랜드와 2023 아놀드 클라크컵 1차전 경기.

도, 전국동계체전 전북선수단 격려

전북선수단, 종합 4위 목표

전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강원도 평창을 방문해 경기에 참여하는 전북선수단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0일까지 서울, 경기, 강원 등에서 분산 개최된다. 전북에서는 8개 종목 341명(선수 200, 임원 141)의 선수단 출전에 대비 3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종합 4위를 목표로 하는 전북선수단은 비이슬론 종목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전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부상 없이 좋은 결과를 거두길 바라며,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을 보여 주는 전국동계체육대회가 되길 바란다"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또한 전북의 명예를 걸고 종합 4위를 목표로 열정과 연습으로 지금까지 준비한 선수와 강도 높은 동·하계 훈련을 비롯해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지도자분들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체육계 임원 여러분께도 감사사를 전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민과 함께합니다'

전주시민축구단
새시즌 유니폼 공개
'국가 관광거점도시 전주'
유니폼 전면 이미지 삽입



전주시민축구단이 2023시즌 유니폼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홈 유니폼은 상의와 하의를 빨강색으로, 원정 유니폼은 상의와 하의 모두 흰색으로 구성하고 체크무늬로 강렬함을 더했다.

골키퍼(GK) 홈 유니폼은 노랑색을, 원정에는 빨강색을, 그리고 셔츠에는 피랑색을 사용했다.

특히 유니폼 전면에는 '국가 관광거점도시 전주' 이미지를 넣어 전주시 홍보에도 적극 나섰다.

이와 함께 소매 부분에는 전북도 지정 이미지를 넣고, 상의 뒤편

전주시민축구단이 공개한 2023시즌 유니폼(사진 왼쪽부터 홈 앞면·홈 뒷면·원정 앞면·원정 뒷면)

하단에는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를 새겨 대회 성공 개회를 기원했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후원하고 있는 고은마태(진료과목 피부과)는 상의 뒤편 상단에 상호를 세웠다.

전주시민축구단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유니폼 제작을 시작했다"면서 "올 시즌 K3리그 승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북현대의 2023시즌 유니폼 촬영에 나선 조규성.

조규성, 새 시즌 유니폼에 "만족"

전북, 미스틱 그리드 웨이브스 유니폼 공개

프로축구 전북현대 공격수 조규성(25)이 새 시즌 유니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전북현대포터스FC는 2023시즌 유니폼 '미스틱 그리드 웨이브스(Mystique Grid Waves)'를 지난 17일 공개했다.

전북은 지난해 아디다스와 공식 후원 계약을 맺으며 선보인 진녹색 유니폼을 올 시즌에도 홈 유니폼으로 착용한다.

필스라임색이 아디다스 로고와 삼선 라인 등에 적용됐다. 모기업 현대차의 라디에이터 그릴 무늬와 유사한 격자

무늬가 유니폼 전면과 후면 하단에 들어갔다.

전북은 "포인트로 적용된 격자무늬가 물결 모양으로 표현된 것을 착안해 2023시즌 유니폼 이름을 미스틱 그리드 웨이브스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북 선수들은 18일 공개 훈련에서 홈 유니폼을 착용해 실물을 공개했다. 신규 유니폼 촬영에 나선 조규성은 "유니폼 색상이 예쁘게 잘 나왔다"

며 "팬분들께서 평상복으로 예쁘게 코디해 입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

아·태 마스터스대회 참가자 숙박시설 관리 총력

조직위, 참가선수 애로사항 해결 위해 보완책 마련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참가선수와 관람객의 편의도모를 위해 숙박시설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현시점에 일부 숙박시설이 예약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참가선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조직위는 해외참가자들의 숙박 예약 정보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하는 등 숙박 예약에 불편함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도내 관광호텔 34개소 중 13개소의 숙박시설이 시스템을 통해 예약이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숙박시설은 유선으로 연락할 경우 숙박 예약이 가능하다.

또한 시군 담당부서, 숙박협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숙박업소가 예

약정보를 즉시 제공하도록 협조 요청도 했다.

아울러 쾌적하고 깨끗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내 숙박인증제를 시행한다. 숙박인증제는 관광호텔과 호텔 수준의 일정 기준을 갖춘 숙박시설에 대해 시군의 추천을 받아 해외참가자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시군담당자를 통해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조직위는 앞으로도 참가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회 홈페이지를 정비하고, 대회 참가자가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숙박업소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